



태평양항로 정기선사 90% 넘는 소식률 유지 컨테이너선용선지수 한달 사이에 5.6% 상승

태평양항로에 취항중인 정기선사들의 소식률이 90%를 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 용선료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태평양항로 안정화 협정(Transpacific Stabilisation Agreement : TSA) 소속 11개 선사에 따르면, 아시아-북미 항로의 소식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4개월동안 미국 서안 서비스는 95% 내외의 소식률을 보이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미 동안 서비스는 100%의 소식률을 기록하는 등 만선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양호한 선적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운산업 관계자들은 해운시장이 침체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공급량이 올해에 16%, 내년에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컨테이너 교역량은 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TSA는 아직까지 태평양 항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TSA는 Piers(Port Import-Export Reporting Service)의 데이터를 인용, 1월과 2월의 물동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과 미국간의 교역량이 24% 증가함에 따라 아직 미국의 경제적 기반이 견고하여 컴퓨터, 통신기기 및 기계류 등에 대한

소비수요가 견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TSA는 항만의 기반시설과 운영능력 상의 문제에 따라 대형 신조선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며, 아시아지역 물동량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선박공급량의 증가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TSA 회원선사들은 올해 전반적인 운영비용이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북미항로 간 2.8대 1의 교역규모 불균형에 따라 공 컨테이너의 재배치 비용이 약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내 철도 및 도로 운송비용 역시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 항로 선사들의 전체적인 운영비용 규모는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평양항로 선사들은 주요 화주들과 매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12개월 단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북미 간 서비스의 90%가 운송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기선 컨테이너선용선료 상승세가 1,000TEU급 소형선에서 그 보다 큰 2,000 TEU급 이상선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이 로빈슨(Howe Robinson)사가 발표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용선료지수는 지난 4월 26일 1289.4로 최근 한달사이에 70포인트 오른 5.6% 상승했다.

이러한 용선료 상승추세는 최근 정기선사들이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